
빼앗긴 오월

작성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성지현(시흥 군서고등학교 교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99
장우 장편소설



■주 제 어 #광주민주화운동 #가족 #5.18 #민주주의 #한국사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선정 내역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도서 소개

아버지가 밥을 먹자마자 바로 짐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서면 엄마도 밭으로 나갔다. 엄마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호미와 낫을 챙겨 넣은 소쿠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일이 있든 없든 마당이나 마루에서 기다렸다가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순화는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준영이 형은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다. 그러나 설거지도 공부도 하지 않는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어 부족한 잠을 채운다. 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 잠도 꿀맛 같고, 밥이 소화되는 시간이라 방귀도 기분 좋게 뀌 수 있다.(『빼앗긴 오월』, 8~9쪽)

전라도 광주 근교의 한 촌에 가족들의 생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돼지장수' 아버지와 가족에게 헌신적인 어머니, 운동네 소문난 수재 '준영' 형과 톨망진 여동생 '순화'를 둔 6학년 '준호'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버지가 나를 등에 업었다. 다친 왼팔은 너무 아팠지만 아버지 등은 폭신하고 포근했다. ……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꼭 통증 때문은 아니었다. 감격의 눈물도 분명 섞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포근한 그 등을, 아버지의 땀내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았다.(『빼앗긴 오월』, 132쪽)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으로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준호네는 가족을 위해 서로 희생하고 보듬어 주며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만들어 갔다. 그러다 1980년 5월, 준호네 가족은 준호의 생일을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

광주에서는 시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과격해진다고 했고, 대학생에서 일반 시민까지 가세하는 등 시위 군중도 자꾸만 늘어났다고 했다. 나중에는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참가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광주 사람들 모두가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 …… 알려도 해도 알 수가 없었다. 광주라는 도시는 계엄군이 시외곽을 봉쇄하면서 전화와 전기까지 끊어 버렸기 때문이다. 촌에 사는 우리는 그런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빼앗긴 오월』, 173~174쪽)

이 작품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광주'의 아픔을 시골 소년 준호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다. 평범한 한 가족의 일상을 전라도 시투리로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광주'의 아픔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학습 목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는 준호는 5월 24일인 자신의 생일날에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형이 반드시 오기를 기대하며 생일을 하루 미루면서까지 준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준호의 생일은 짓밟히게 되고 준호네 가족은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 절망'(『빼앗긴 오월』, 180쪽)을 느끼고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게 됩니다.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에게 1980년 5월에 닥친 불행은 무엇이며,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시대 현실의 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 나의 가족 관계 성찰하기 - '진진가 게임'으로 친밀감 높이기	1차시
독서	1~8장 읽고 활동하기 - 내용 이해: 인물 관계도 그리기와 성격 파악하기 - 적용 활동: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그림 그리기	2, 3차시
	9~16장 읽고 활동하기 - 내용 이해: 시대적 배경 파악하기 - 적용 활동: 시와 어울리는 장면 찾아보기 - 생각 나누기: '반장선거'	4, 5차시
독서 후	〈토론 활동〉 두 마음 토론	6~8차시
	〈쓰기 활동〉 - 광주의 형에게 편지 쓰기. 형이 가족에게 편지 쓰기	9차시
	〈나눔 활동〉 피드백 활동 및 삶의 내면화 활동 - 글쓰기 결과에 대한 발표와 동료 피드백	10차시



1. 광고에 등장하는 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관련 영상] 공익 광고 '가족 관계-질문' 편

<https://www.youtube.com/watch?v=o1sulATsxqo>

--

2. 자신의 가족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발표해 보십시오.

묻고 싶은 대상	질문	질문의 이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께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 가족의 보편적인 문제를 도출하도록 지도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부족, 가족 간의 배려 부족, 가족 간 감정 표현 부족 등을 다른 가족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도록 지도합니다.

3. 진진가 게임으로 구성원끼리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 게임 소개: ‘眞眞假’, ‘진짜, 진짜, 가짜’의 줄임말로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 답변으로 구성원 간 친교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 게임 목표: 동료, 가족, 프로그램 참가자끼리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세밀한 특징이나 욕구 등을 서로 알아 가면서 공동체의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친밀도를 높인다.

■ 게임 방법:

진행 순서	설명	준비
자리 배치	모든 모둠원(또는 학급 전체)이 얼굴이 보이도록 둥글게 앉는다.	
답변 적기	- 배부된 종이에 각자 자신과 관련된 사실 2개와 가짜 정보 1개를 적는다. (시간은 3~5분) - 상황에 따라 특별한 주제를 정할 수 있다. (예: 나의 일대기, 내가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답변 용지
자기소개 하기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답변 3개를 천천히 말한다.	답변 용지
질문하기	- 나머지 사람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질문을 한다. (묻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삽입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함) - 질문은 세 개 중 하나의 진실에 대해 한 사람당 한 개를 질문하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할 수 있다. - 진행 시간을 고려하여 질문 수를 3~6개로 제한할 수 있다.	맞힘 카드
가짜 맞추기	3개 중 가짜 정보를 찾아내 발표한다. (모든 구성원의 답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 모둠별로 가짜를 찾는 방법 등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함)	
진실 발표하기	발표자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발표한다.	
보상하기	가장 많이 맞힌 모둠이나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 유의점: 너무 뻔하거나 추상적이면 안 됨. (예: 나는 남자다.(×) 나는 맛있는 사람이다.(×))

〈진진가 답변 카드〉

주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1. 내가 하고 싶은 것은	
2. 내가 하기 싫은 것은	
3.	

〈진진가 맞힘 카드〉

이름	1	2	3	맞힘 여부	1	2	3	맞힘 여부

1.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 줄을 작성해 봅시다.

주요 등장인물 소개	▶준호네 가족 -준호(나): -준영(형): -순화(동생): -어머니: -아버지: ▶준호 친구들 -원광: -주미: -봉호:
-----------------------	---

2.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준호네 가족의 인물 관계도를 그려 봅시다.

[방법]

- 1) 각 인물의 뇌구조도 안에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표현합니다.
- 2)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책의 페이지와 줄 수를 밝혀 표현합니다.
- 3)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 준호]



[형 - 준영]



[동생 - 순화]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의 권력애와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욕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긴다. 자녀에 대한 권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물의 본성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면에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부모의 권력 충동으로 보아서는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는 이러한 갈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녀들이 항거할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폭군 행세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버이들은 이러한 갈등을 의식하고 그들이 이러한 갈등의 희생자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는 부모로서의 행복은 사라진다.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들이 원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알고 괴로워한다. 자식이 군인이 되기를 바랐건만 평화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톨스토이의 경우처럼 자식이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바랐으나 극우 비밀 결사단에 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움은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준다면 당신은 그 아이의 수고를 덜어주는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권력애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너무 생생하게 위험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그 아이가 언제까지나 당신에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 만일 당신이 반응을 기대하면서 애정을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당신은 아마도 어린아이의 감정에 의해 그 애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부모가 매우 조심스럽지 않거나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한, 어버이의 소유 충동은 크고 작은 수많은 방식으로 자녀들을 빗나가게 만들 것이다.

(중략)

현대 사회에서 부모로서의 충분한 기쁨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획득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애를 억제해야겠다는 쓸데없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자녀들이 자유를 얻게 될 때 강압적인 부모가 경험하는 쓰라린 환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부모는 일찍이 부모들의 권력이 성하던 시절의 강압적인 부모들보다 한층 더 큰 기쁨을 맛본다. 친절한 마음씨로써 모든 독재적인 경향을 말끔히 씻어버린 사랑은 이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아직도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보다도 더 우아하고 더 부드럽우며, 일상생활의 비금속을 신비로운 황홀경이라는 순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버트런드 러셀, 황문수 옮김, 『행복의 정복』, 2017, 문예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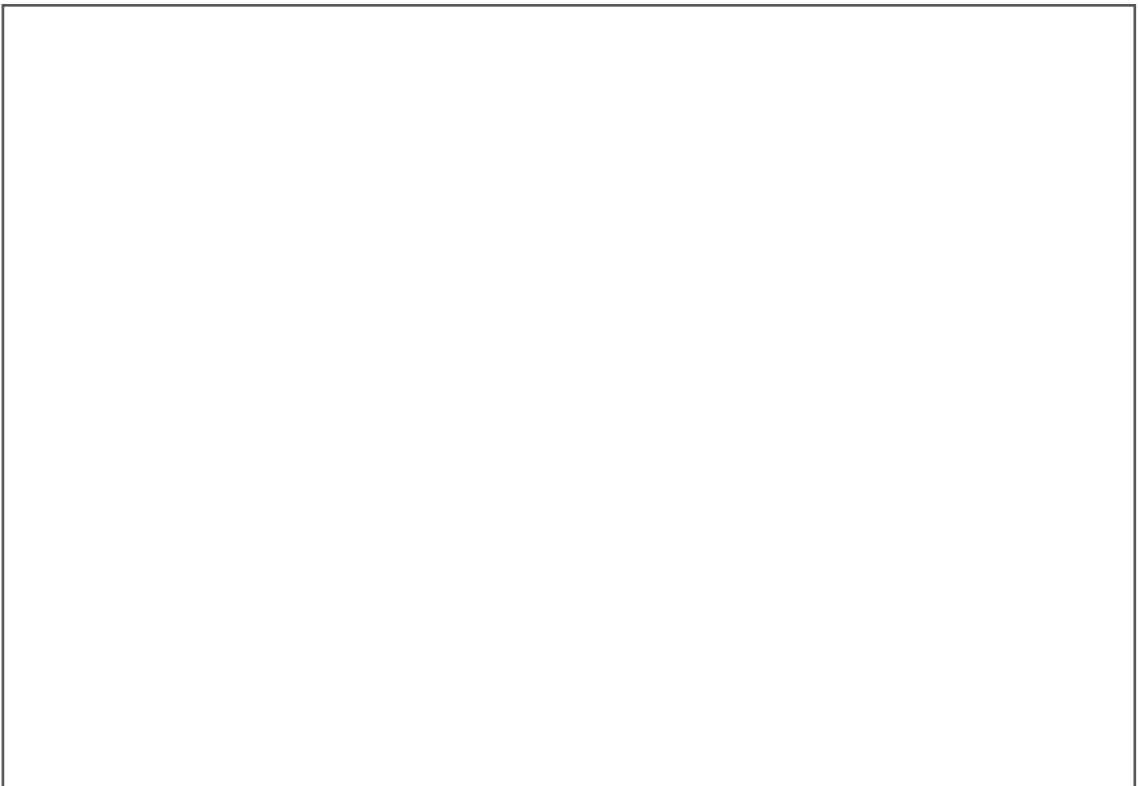
1) 준호네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6장-눈물의 밥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고 짝의 생각을 들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원인	짝이 생각하는 원인

2) 앞의 글을 토대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지녀야 할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미래에 부모가 된다면, 나의 자녀를 대할 때 어떤 원칙을 지닐 것인지 적어 봅시다.



3) 모둠을 이루어 물음 2)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우리 모둠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선생님께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모습 뿐만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도 좋습니다. 모듬이 아니라 개인 활동으로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과 가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면 됩니다.

1. 다음의 해시태그(#) 단어가 사용된 쪽수를 찾아보고,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해 봅시다.

#	쪽	내 용
#십이륙사태		
#민주주의		
#신군부 #쿠데타		
#광주 #오월 #시위		
#비상계엄령 #계엄군		
#빨갱이		

2. 다음 세 편의 시를 감상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제목을 추측해 봅시다. 그리고 『빼앗긴 오월』에서 비슷한 정서가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봅시다. (단, 시 내용 속의 괄호는 제목과 똑같습니다.)

()	()
친구 동준이가 집에 놀러 왔다 라면을 네 봉지나 먹은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꺼졌다 그러다가 동준이가 진열장에 있는 아빠의 테니스 라켓을 꺼내 들었다 라켓으로 강서브 흥내를 내는 찰나, 거실 장식등이 와장창 깨졌다 얼른 나는 테니스 라켓을 뺏어 들었다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얼떨결에 라켓을 뺏긴 동준이가 어리벙벙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손바닥으로 아들놈 등 쓸어주는데 손톱을 세우란다 손바닥이 얼마나 시원한데 손톱은 금세 더 가려워진단다 해도 대구 보채쌍는다 마지못해 손톱을 세워 살살 긁으면 나 어릴 적 썩썩 등 쓸어주시던 () 생각 한가득 보풀이 일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발고랑 억센 바랭이들 순하게 눕고 벼논의 모들은 귀 총총 세우고 푸르게 일어섰지 () 따라 나는 참 순수히 잠이 들었다 손톱을 세워 아들놈 등 긁어주며 자랄 새 없이 닳아져서 당최 내세울 바 없던 아버지 무딘 손톱과 잠결에도 내 등 마당에 땀싸리 빗자루처럼 쏘리던 손바닥 소리를 듣는다

()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령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운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 뉘라.”

설령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뼛 손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령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낯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톡, 부딪쳤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령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 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 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

선생님께

시에 드러나는 정서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잘 어울리는 부분을 찾도록 합니다.

3. 준호네 반에서 치러진 ‘반장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 부분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 봄에 6학년 우리 반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아니, 엄청 큰 변화였다. 3학년 때부터 반장을 맡았던 진성이 읍내 학교로 전학 가고 나서 그 자리를 주미가 차지한 것이다. 분명 ‘차지’였다. 우리 반 아이들은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고 싶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관심이 없었다. 그냥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도 그랬다. 조회 시간에 뜬금없이 “반장 해 볼 사람?” 그랬는데, 모두들 놀라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주미 혼자 손을 번쩍 들었던 것이다. “선생님, 저요.” 그러자 선생님은 입술을 오므리며 주미를 내려다 보더니 바로 승낙해 버렸다. “좋아, 박주미 네가 해라.”

(『빼앗긴 오월』 본문 161쪽)

선생님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두 마음 토론(3인 1조 모둠) 방법]

토론 전	[모둠 편성] - 3인 1조가 되어 '준호'(찬성 측), '아버지'(반대 측), 심판의 역할을 정함 [작전 회의] - '준호'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맡은 사람끼리 모여 입론과 반론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심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토론 진행 방법과 판정 기준을 세우도록 함 - 제시된 본문을 중심으로 작품 전체 내용 이해 및 당시 5.18민주화운동의 시대현실과 현재 우리 사회 모습까지 확장시켜 입론과 반론을 충분히 준비함
토론 중	[토론 순서 및 진행 방법] - '준호'(찬성 측)부터 입론을 시작하고 심판의 주도로 진행함 - 심판이 바라보는 사람만 발언할 수 있음 - 심판은 토론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토론자는 심판이나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할 수 없음 - 각 입장 별 5~6회 정도 발언한 후 심판이 판결함
토론 후	[판결] - 전체 모여 각 모듬의 심판들이 일어나 판정 이유와 함께 승리 측을 발표함 - '준호'(찬성 측), '아버지'(반대 측) 중 승리 득표가 많은 입장이 전체 승리 [활동 소감 발표] - 희망자가 자발적으로 토론 과정과 판결에 대해 소감을 발표

(참고 문헌: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토론 수업 34차시』, 배광호, 뜨인돌)

선생님께

- 토론이 승패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공유, 협력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 판정지를 작성하느라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내용만 간단히 메모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심판이 판정 이유를 발표할 때에는 각 모듬의 '준호'(찬성 측), '아버지'(반대 측)의 입론과 반론 내용을 요약하고 논리적 이유를 제시하며 승리 팀을 발표하게 합니다.
- '아버지'와 '준영', '준영'과 '준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독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는 ‘준호’와 “가지 말그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두 마음 토론을 해 봅시다.

나는 밤이면 뒷산에 올라 악을 쓰며 혼자 울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서영! 이게 뭐야? 말 잔 해 보라고 왜 그랬어? 우리는 어척하라고 그랬냐고 아악! 대답 잔 해 봐.”

그래 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밤마다 뒷산에 올라 악을 쓰며 울었다.

어느 때는 그런 내가 무섭고 싫었다. 그래서 밤새 고심하다 새벽어둠이 걷히기 전에 집을 나섰다.

어디로든 떠날 생각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런데 자꾸만 뒤가 돌아빠졌다.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닌데 남아 있는 가족들이 눈에 밟혔다. 그럴수록 나는 발걸음을 재게 놀렸다. 그래야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원광이 집을 지나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돼지를 지키던 대밭 아래 공터에 이르자 스르르 기운이 빠졌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뭐가 움직였다. 나는 너무 놀라서 멈칫했다.

괴물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물체가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가지 말그라.”

나는 머리끝이 쭈뼛거렸다.

“.....!”

“가지 말래두.”

“아, 아버지?”

방 안에서 꿈쩍을 앓던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다.

“일루와 앓거라.”

맨땅이었다.

아버지는 맨땅에 앉아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술은 왜요?”

“이거라도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느그들하고 한 약속을 깨 붙고 말었다.”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빈속인디요.”

“걱정 말어. 느그들 얼굴 깎일 일은 안 할 텅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약속 어긴 걸 미안해했다.

“아버지, 바닥이 찬디요.”

“이이, 차킨 차다만 니가 있음께 참을 만허다. 근디 니가 가 붙면 어척하겄냐. 느그 엄마는 또 어척하라고 못난 생각을 혀.”

“그저는.....”

나는 목이 메어 하려던 말을 잊지 못했다.

“애비는 인자 정신 차렸으께, 니도 판생각 말그라. 산 사람은 살아야제.”

“성이 너무 불쌍하잖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어쩔 것이냐. 그런 세상에 태어났는디. 지 혼자 살것다고 내뺨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하야제. 니도 낭증 되면 알겠재만 니 성은 폭도가 아닌께. 우리가 기죽을 일도 읍다. 진짜 폭도는 따로 있으께. 나쁜 놈덜, 어린것들 목심은 왜 뺏어가. 세상을 뺏어 갔으면 됐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다.

“아부지!”

그 새벽, 내를 이루도록 흐르는 눈물을 나는 주체할 수가 없었다.

(『빼앗긴 오월』, 180쪽~182쪽)

[개요서]

준호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		집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유와 근거		이유와 근거	
1			
	왜냐하면	1	왜냐하면
2	왜냐하면	2	왜냐하면
3	왜냐하면	3	왜냐하면
4	왜냐하면	4	왜냐하면

[판결문]

결과	나가려는 '준호'와 반대하는 '아버지'의 입장의 이번 토론에서 승리는 ()입니다.
왜냐하면	

9차시

독서 후 - 글쓰기 활동

1. 아래와 같이 '부모님이 나를 아낀다고 느낀 경험'을 써 봅시다.

김스를 풀러 병원에 가는 버스 안에서 몇 번이고 아버지 얼굴을 훑쳐봤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는 게 무지 좋았고, 아버지가 나를 아낀다는 게 무지 좋았다. 이제는 굳이 아버지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빼앗긴 오월』, 139쪽)

선생님께 실제로 자식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각자 경험한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표현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글로 표현해 봅니다.

2. <보기1> 자료 중 하나를 보고, <보기2>의 관점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준영이 형'의 행위를 평가하는 글을 '조건'을 고려하여 써 봅시다.

〈조건〉

- '광주민중화운동'의 의미를 요약하는 단락으로 시작할 것
- 두 번째 단락에 <보기2>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 제시할 것
- 세 번째 단락에 '준영이 형'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이유-근거'의 구조로 밝힐 것

〈보기1〉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sub.php?PID=0101>

지식채널e :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108578>

〈보기2〉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란 책을 보면, 도덕적 사람도 사회의 어느 집단에 속하다 보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고 한다. 특권을 가진 집단의 이기심에서 생기는 이 사회적 부도덕은 조정과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비도덕적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사회구조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비도덕적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개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께 <보기2>의 관점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특권을 가진 집단의 이기심에서 생긴 사회적 부도덕성에 대한 저항이란 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합니다. 준호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간이지만 비도덕적 사회와 맞닥뜨리면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려고 투쟁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준영이 형의 사회 운동 참여를 평가하도록 지도합니다.

.....

.....

.....

.....

.....

.....

1. 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나는 언덕에 자전거를 세우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나 혼자 바다와 산에 안긴 듯한 느낌이 좋았다. 나무도 바위도 어슴푸레한 풍해 마을 집들도,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좋은 고향을 두고 준영이 형은 도시로 떠나야 한다. 그런 형이 안쓰러웠지만, 아버지 말처럼 큰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준영이 형이 꿈을 꼭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른다는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항상 웃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아주 간절했다.

(『빼앗긴 오월』, 126쪽)

2. 두 명씩 짝을 지어, 9차시 2번에서 작성한 글(준영이 형의 행위 평가)을 바꾸어 읽고 상대방의 글을 평가해 봅시다.

1) 글을 바꾸어 읽어 봅시다.

2) 상대방의 글을 <보기>를 고려하여 평가해 말해 봅시다.

〈보 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했는가?

<보기2>의 내용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재진술했는가?

'준영이 형'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주장과 이유, 근거의 구조로 잘 제시했는가?